[일내세 힘내세] 복지국가, 마을에 묻고 관계로 답하다.
제3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발견 : 새 공동체 이야기

글. 주요섭 | 한살림 연구소 사무처장

아래 글은 일촌공동체 정기간행물(웹진)을 통해 매월 연재되는 주요섭의 '새 공동체 이야기' 원고 전문입니다.

1. 왜 결사체가 아니고 공동체인가

최근 지적 장애인 언니를 홀로 보살펴오던 여동생이 "할 만큼 했으나 이제 지쳤다"는 말을 남기고 고단한 삶을 스스로 마감해 사람들을 몹시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해 2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또 한 번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지난 해 2월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지난 1월 초에는 서초구에서 중산층의 남성 가장이 세 모녀를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지치고 죄송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 여동생과 세 모녀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좀 더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왜 교회나 성당 혹은 절을 찾지 않았을까, 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 모녀가 국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알았다 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고단한 삶 그 자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지치고 힘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테니까요.
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존엄'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존엄, 인격의 존엄, 영혼의 존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닌 이상, 존엄은 '또 다른 존엄'에 의해 함께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무심합니다. 함께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인격과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상품이 아닌 선물을 주고받을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힘들 땐 한 몸이 되고, 기쁠 땐 한 마음이 되고, 삶 속에서 '함께 하나를 이루어 갈' 공동체 말입니다.
요새는 정치권에서도 공동체의 붕괴를 걱정합니다.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파편처럼 찢겨졌다는 말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붕괴란 사회적 신뢰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모녀나 동생처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삶은 이미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존엄'의 문제이며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호(救護) 보다 치유(healing)가, 웰페어(welfare)가 보다 웰빙(wellbeing)이, 결사체가 보다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국가는 미국의 사회학자 맥키버(McIver)의 말대로 공동체(community)가 아니라 결사체(association)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니까요. 맥키버에 따르면 '결사체란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유형'입니다. 계급·카스트(caste)·기업체·국가·학교·클럽·경기단체·학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결사체는 삶의 전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생활의 특정한 부분만 결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정한 목적의 달성이 중요합니다.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자활공동체는 자활지원센터가 만들어준 '인위적 결합'이었지만 목표가 달랐습니다. 생활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잘 먹고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경제가 중심이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부가 정한 행정명령에 따라 자활공동체란 이름이 자활기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격적 관계와 배려의 마음은 사라지고 '순수한'(?) 경제적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매진하지 않으면 탈락할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결사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조직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원래 협동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한살림은 처음부터 공동체운동을 지향했습니다. '협동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적절합니다. '한살림'이란 말 자체가 '함께 살림' 즉, 공동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공동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법인격이 뭐가 되든지 말입니다.(조합(組合)이란 한자말도 별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약이 '보이는 결합'이라면 '보이지 않는 결합'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에는 '필요의 충족'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일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이익이나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합의와 계약 이전에 서로를 관통하는 '숨겨진 하나됨'의 존재를 생각해봅니다.

'새' 공동체를 그려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공동체는 결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드러난 하나됨'을 빌미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묶어 두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구속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하나됨'을 인정하면서도 존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대세계는 '나' 없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계약에 의한 새로운 관계형식으로써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가 그것입니다. 19세기에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오늘 새로운 사회적 점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공동체, 내가 온전히 실현되는 공동체 말입니다. 더욱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공동체 뿐 아니라, 기존의 공동체와 결사체가 함께 공존하고, 또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엄밀한 이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부분적 결합과 전면적 결합, 이익과 의미, '계산 있는 협동'과 '계산 없는 협동'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이야기 말입니다. '자연적 결합'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인위적 결합'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개인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계약으로 '숨겨진 하나됨'을 실현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 말입니다.

2. 미생의 공동체, 완생의 공동체

지난 해 '미생'이라는 TV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운이 길게 남아있습니다. 최소한 '장그래'라는 주인공의 이름만은 꽤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장그래'는 이제 비정규직을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여행을 갔다 우연히 보게 된 미생의 스토리나 연기가 과연 실감이 납니다. 사실은 오래 전 만화로 보았으나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뒤늦게나마 드라마를 보며 '장그래'와 '이차장'으로 대표되는 회사인간의 인생이 참으로 절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는 '미생'이라는 말. 인터넷 바둑을 즐기는 애호가로써 '미생'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미생(未生), "태어나긴 했으나 아직 성체(成體)로써는 미완인 존재."

미생은 바둑판이라는 한 우주에서 실존적으로 불안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되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또 버텨야 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미생은 전쟁 같은 인생에서 적들의 먹이감입니다. 미생은 예고된 죽음이기도 합니다. 미생은 치명적 패배를 암시합니다. 때문에 목표는 '완생(完生)'입니다. 두 집을 내고 삶의 안전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춰서 곰곰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바둑판 전체로 보면 완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완생은 미생이 그렇듯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과정입니다. 실제 완생 하고도 전체 바둑에서 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더욱이 여기엔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둑판은 19줄×19줄의 폐쇄된 세계이며, 361개의 눈에만 바둑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판은 이를테면 폐쇄적 공간, 닫힌 우주입니다. 요컨대 미생이든 완생이든 바둑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물음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사회는, 공동체는 닫혀있는가 열려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세계는 열려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닫혀 있으면서 동시에 열려있습니다. 세포막이나 개체적 존재나 생사(生死/태어나고 죽음)로 닫혀있지만, 동시에 호흡과 유기적 관계와 창조적 순환으로 열려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성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바둑판에서 미생은 안정적 삶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고, 완생함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미생이기에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완생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바둑판 너머를 상상하는 일입니다. 삶이 바둑판 안에 갇혀있다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19줄×19줄의 바둑판의 경계를 넘어서야 미생과 완생 너머 '영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을 보며 공동체의 생애를 생각해봅니다. 그 많던 의도적 공동체의 사활은 어떻게 되었을까. 삶을 나누는 관계망들은 어떻게 변화해갔을까. '미생의 공동체'와 '완생의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려봅니다. 좁은 의미의 공동체건 넓은 의미의 공동체건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공동체 그 자체가 실존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합니다. 수많은 공동체들이 미생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생의 공동체는 이를테면 '동사적 공동체'입니다. 존재가 생성 그 자체인 무한히 열린 공동체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명사로써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공동체를 딱딱하게 고정된 실체인 '명사'가 아니라 생성하는 '동사(動詞)'로 잃어봅니다. 공동체는 이를테면, "함께(共) 하나(同=公)를 이룸(體)"입니다. 특히 구성원을 관통하는 '숨겨진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명사적 공동체'가 아니라 '동사적 공동체'입니다. 완생의 공동체보다 미생의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완생이 닫힌 유토피아라면, 미생은 열린 유토피아입니다.

‘과정기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조기획’이 목표와 설계도에 따른 공학적 구조물 만들기라면, 과정기획은 창조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과정은 “자유로이 상호작용하고 그들 스스로 진화 구조들의 질서를 찾도록” 하는 촉매가 됩니다. 공동체건축하기(community-building)가 아니라, ‘공동체살리기’ 혹은 ‘공동체기르기’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지도 모릅니다. 공학적 은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은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미생의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세계에 완생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생의 공동체는 이를테면, 닫힌 유토피아입니다. 과거의 이념형 공동체나 폐쇄적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영원히 생성하는 미생의 공동체가 지금여기의 열린 유토피아일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2014년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무소유공동체 산안마을이 3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기는 했지만 특별한 행사를 치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1년째가 되었습니다. 산안마을 역시 완생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행복해보입니다. 미생이지만 행복합니다. 올해 4월이면 손자세대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철학이나 방향, 방식을 떠나서, 미생의 공동체 산안마을은 완생하지 않음으로써 영생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는 ‘미생’으로써 희망이 됩니다.
새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이며, 생성하는 공동체이며, 과정기획의 공동체입니다. 동사적 공동체입니다.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어감’으로써 지금여기의 유토피아가 됩니다. 완생 자체가 목표가 아닌, 지금 여기서 행복한 미생을 상상합니다.

3. 기억보다 더 깊은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때는 밤에 심장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진해지는 거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보고 싶고 그리움은 더 진해 집디다. 기억은 희미해질지언정 그 보고픔은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이제 1년도 안됐는데 너무 힘듭니다.”
며칠 전 언론에 소개된 세월호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다른 유족들처럼 죽은 딸을 위해 새 휴대전화를 장만했습니다.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못 죽였습니다. 애한테 가끔가다 카카오톡 이런데다 한 번 씩 편지를 씁니다.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우리 애 핸드폰은 항상 충전기에 꽂힌 채 24시간 켜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친구 애들이 딸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해 와요. 어쩔 때는 밤에 계속 딸 핸드폰이 울어요. 카톡, 카톡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애 중학교 단짝인 애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계속 쓰고 있더군요.”
“카톡카톡”, 카톡 소리에 깨어나는 세월호 아빠의 이야기가 가슴을 때립니다. 유족들 대부분은 아직 아이들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한스럽고, 안타깝고, 또 너무도 사랑하여 아직 아이의 자취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을게’라는 노래 제목처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세월호의 영혼들이 외롭지 않게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우리는 이미 ‘4.16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기억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의 죽음을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억’이 절실합니다. “인종도 언어도 종교도 나이도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야말로 진실로 나와 유관하다”
『아무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바다출판사, 2013)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자 알폰소 링기스는 ‘죽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배적 질서의 바깥 타자화된 죽음을 잊지 않고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돈도 권력도 언론도 외면하는 이른 새벽 노숙자의 죽음과 깊은 산속 요양병원의 죽음에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입니다.
죽음의 공동체는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먼 절대 실존의 공동체입니다. 아니 실존 그 이상입니다. 머리의 기억

보다 깊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때 죽음을 기억하는 공동체란 사건, 사고에 대한 표피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이 일종의 '되살아난 생각'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존재론적 각성입니다. 이를테면 '숨겨진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참혹한 고통이 있을 때에만 '숨겨진 하나됨'이라는 깊은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발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가락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배탈이 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위장과 내가 하나였음을 자각합니다. 나의 몸이지만, 아프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아픔을 통해 본래 하나였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면,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적 몸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원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라는 배의 존재도, 선장과 선원도,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실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링기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타자가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타자를 위로한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사실은 타자라고 생각되었던 그 역시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의 깨달음이 생각납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곧 나였다는 것을." 세월호의 공포, 세월호의 눈물, 세월호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생명은 하나라는 것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엔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아픔 때문에 되살아난 것뿐입니다.

공동체를 혹 '얕은 공동체'와 '깊은 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면,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 죽음을 기억하는 공동체야말로 '깊은 공동체(deep communit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영혼(靈魂)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영혼의 공동체'입니다. '동심(同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共同體)의 그 '동(同)',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하는 '같은 마음' 말입니다. '공동체 영성(spirituality of community)'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감정(community sentiment), 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보다 깊은 그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아이들의 카톡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동학의 13자 주문이 생각납니다.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万事知).' 그 중에서도 '영세불망'을 떠올립니다. 종교적 주문이니 기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근본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됨, 숨겨진 하나됨 말입니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였음 잊지 말고 잊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동심의 재발견, 혹은 동심의 회복." 이제야 가슴이 아픈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대가 나'였기 때문입니다.